



# 보도자료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십시오

배 포 일	2022. 3. 21.	사진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진있음 <input type="checkbox"/>		매수 : 2매
담당	혁신성장연구실	집필자	김경남 선임연구위원	T. 033-250-1325 H.P 010-8750-4625 E. robert00@rig.re.kr

## 강원연구원 동해안 뉴딜형 산불대책 제안

- 강원연구원(원장 직무대행 김석중)에서는 2022년 3월 4일부터 동시다발된 산불 대응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 대형산불이 발생한 이후, 원인과 대안을 찾는 가운데 대부분 수종(樹種)과 밀도 조절이라는 산림관리에서 대안을 찾으면서, 기존 방안을 답습하는 실정이다.
- 금번 강원연구원의 RIG브리프(제20호) ‘양간지풍의 동해안 산불, 대책은 있는가?’ (연구책임 : 김경남 선임연구위원)에서는 기존의 산림관리 대책, 공중기동형 대책 외에 지역거점형 대책을 제안하였다.
  - 강풍 속 초동진화를 못하고 산불이 원전과 LNG기지를 위협하면서 1차 헬기자원 배분이 줄었고, 게다가 강릉 성산과 옥계, 영월에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자 그마저도 분산되는 등, 강풍과 동시다발적 산불 그리고 중요국가지설이 위협받을 때를 대비한 산불대비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에 강원연구원에서는 자연-인간의 간접지대에서 발화된 산불이 서풍을 타고 확산되면 자연-도시에서 큰 피해를 일으킨다는 점에 착안하여 산지내 거점에는 방화수가 저류된 Fire Breaker를, 도심 배후면에는 Fire Breaking Zone을 주택 주변에는 Fire Safety Zone을 시설하는 등의 거점형 산불대책을 제안하였다.

- 특히 이번에 3년 만에 다시 산불이 발생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기존 대책의 한계를 인지하여 “산불극복뉴딜전략” 으로서, 선 공간계획 후 분야별 복구 사업을 추진하는 종합행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하였다.